

# KSC 봉사자 수첩



## **Servants of the Holy Spirit**

LSS 봉사자 지침서 - KSC ©2007



# 목차

목차 .....	1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의 역사 .....	2
미주 성령 은사적 쇄신 운동의 비전 .....	6
KSC의 사역 .....	8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교본 .....	10
세미나 소개 강의 .....	11
제 1 강의 하느님의 사랑 .....	13
제 2 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	15
제 3 강의 새 생명 .....	17
제 4 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	19
제 5 강의 성령 안의 세례 (잠김) .....	23
제 6 강의 성령 안의 성장 .....	25
제 7 강의 그리스도로 변화됨 .....	28
LSS 세미나는 복음 선교의 탁월한 수단 .....	30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언어와 예언 말씀에 대한 KSC 지침 .....	32
KSC 연표 .....	34

##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의 역사

그간 ‘성령 쇄신’이라고 한 용어는 영어로 ‘Charismatic Renewal’을 잘못 번역한 것이므로 ‘성령 은사적 쇄신’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 용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감하신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친히 명명하심으로써 교회의 공식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성령의 활동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앙 생활은 모두 은사적입니다.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사와 전례 행위가 모두 은사적입니다. 모든 그리스찬 생활은 은사적이며, 물론 성인 입교 예식에 포함되는 입문 성사들도 모두 은사적입니다.

### • 현대 가톨릭 성령 강림 운동의 태동

20세기를 내다 보면서 오순절의 쇄신 운동이 19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Italy 에서 ‘성령 봉헌 수녀회’의 창설자인 Sr. **Elena Guerra 수녀가 당시 교황 레오 13세** 1895년 부터 1903년 까지 12통의 서한을 보내 ‘교회가 기도하는 이층 방으로 변모 되도록 성령 신심을 고양시켜 주십사’ 하고 즐기차게 청원하였습니다. 특히 1900년 10월 15일 교황님께 보낸 서한에서 Elena Guerra 수녀는 신세기 첫 날을 온 교회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송가로 시작하기를 청하였고, 레오13세께서는 1901년 1월 1일에 ‘Veni Creato Spiritus’ 의 성가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령 송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오순절 성령의 물결이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 • 개신교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교파의 시발

한편 미국 Kansas 주 Topeka 의 감리교 Charles Parham 목사가 이끄는 Bethel Bible College 라 부른 작은 학교에서 신년을 맞기 위해 1900년 12월 31일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오순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순절 체험 신앙을 기존교단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오순절 교파가 파생되었으나, 그 후 오순절 운동은 점차 기존교단에도 파급되었습니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교회 쇄신 운동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길이 아직 타오르지 않고 있을 때, 20세기 성령의 사도라 불리우는 요한 23세에 의해 Elena Guerra 수녀의 시복이 결정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특히 요한 23세께서는 친히 전 교회에 ‘오! 주여, 제2의 성령 강림으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라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며,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심으로써 현대 가톨릭 오순절 운동이 위로부터 보편 교회 중심부에 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 • 가톨릭 오순절 운동의 태동

이러한 가운데 1966년 부터 **pittsburg PA의 Duquense University**에서 **Bible Study Group** 을 만들어 공부하며 가도하던 신심 깊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1967년 2월 18일 주말 피정에서 오순절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 오순절 운동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같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과 나누게 되었고, 성령의 불길은 각 대학과 도시로 번져 나가게 되고, 미 주교 회의를 통하여 로마에 보고되었고, 가톨릭 오순절 운동은 바오로 6세의 명명으로 드디어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이라 불리면서 현재 전 세계 그리스도교계의 오순절 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 전국 봉사 위원회-NSC (National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ittsburg, PA에서 시작된 대학생들의 오순절 체험이 Southbend, OH에 있는 Notre Dame University에 점화 활성화 되었고, 매년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가 열리게 되고, NSC가 조직되었으며, NSC는 1992년 Washington, DC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사무국 CharisCenter USA를 개설하고, 매년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Conference와 National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한국 가톨릭 교회의 오순절 운동

한국의 오순절 운동은 1971년 스웨덴의 간호원 선교사 Mrs. Miriam Knutas 에 의하여 전해진 후 미 Maryknoll 선교사들에 의하여 본격화 되었는데 1974년부터 평신도들을 위한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현재는 각 교구 성령 봉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전국 성령 봉사자 협의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 • 미주 한인 공동체의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미주 한인 공동체에서는 처음에 미국 교회에서 세미나를 받고 다시 한국에 나가 봉사자 세미나를 받고 온 박창득 신부 (Orange 본당, NJ) 가 1979년 4월 신자 집에서 실시한 세미나가 효시라 하는데, 7월과 10월에는 New York - Marian Shrine 에서 성령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미주 한인 공동체에서 명실 공히 성령 은사적 쇄신이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 왕영수 신부 (Cincinnati 본당, OH)가 개최한 미주 한인 성령 봉사자 세미나에서 한인 성령 센터-KACC (Korean American Charismatic Center) 가 조직 되었고, KACC 주최로 계속 전국 봉사자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 •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KSC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미주 한인 공동체에서도 일원화된 봉사 위원회의 구성을 염원하여 오던중, 1992년 봄, 북미주 사제 협의회 총회에서 일원화된 전국 봉사 조직을 구성하도록 결정을 보았고, 동년 6월 Pittsburg 미 전국 성령 대회에서 가진 미주 한인 공동체 기도회 장 회합에서 다시 확인, 동년 10월 29-31일 사이에 Newark, NJ 에서 가톨릭 성령 쇄신 북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SC) 발기 위원회가 소집되어, 정관을 확정하였고, 초대 회장에 박창득 신부, 상임 집행 위원에 이창재 부제를 선임하고, 그해 11월 1일 한인 봉사 위원회 (KSC) 의 창립을 선포하였습니다.

2004년 8월 KSC정기 총회에서는 정관을 개정,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KSC(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in the Americas) 로 이름을 정비하고 회장에 이창재 부제를 재선하였습니다.

2008년 6월 KSC 정기 총회에서 회장에 박창득 몬시뇰을 선출하고, 이창재 부제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미주 성령 은사적 쇄신 운동의 비전 현재와 미래

초창기에 성령 은사 쇄신에 접한 신자들은 깊은 회개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에 획기적인 각성을 가져 왔으며, 동시에 내적 치유와 함께 여러 성령 은사의 현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쇄신 운동이 세미나와 기도회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모든 공동체에 확산되면서 이제는 신자들의 신원과 전례, 성사 생활의 쇄신에 비중을 두는 신앙 쇄신운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6세계에서 이 쇄신 운동을 Charismatic Renewal이라 명명했는데 우리 말로는 ‘은사적 쇄신’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성령 ‘은사의 쇄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은사적으로 쇄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2차 바타칸 공의회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 되는 입문 성사를 중심으로 한 성사와 전례 생활이 은사적으로 각성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리 명명하신 것입니다.

KSC(한인 봉사위원회)는 1992년 창립과 함께 미 주교 회의 성령 은사적 쇄신 주교(소)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NSC(미 전국 봉사위원회) 등 은사적 쇄신의 전국 단체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재미 소수 민족 공동체의 한인 대표 단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은사적 신앙 쇄신’의 지침을 우리 한인 공동체에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확인하고 각자의 신원이 각성될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집니다. 우리 쇄신 봉사자들은 그동안 성령 안의 삶 세미나-LSS를 통하여 회심하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수 많은 교우들이 회심하고 입문 성사의 은총이 은사적으로 각성되는 모습을 더불어 함께 보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때 마다 주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을 위하여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쇄신 운동의 두 축으로 삼고, 지금까지 쇄신의 은사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간 성령 세미나로 불려진 ‘성령 안의 삶 세미나-LSS’이며, 다른 하나는 본당에서 성령 기도회라 부르는 ‘기도회-Prayer Meeting’입니다. 성령 세미나는 이제 ‘성령 안의 삶 세미나’로 교체

쓰고 있으며, ‘기도회’도 다른 기도 모임과 구별할 필요성 때문이라면, 차라리 ‘은사적 기도회’ 또는 ‘찬미 기도회’라 하면 무난 하리라고 봅니다. 주지하는 바 대로 ‘성령’ 세미나 또는 ‘성령’ 기도회라 번역한 것은 신학적으로 옳는 말이 아니니 고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3000년기’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께서는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새 세기에 우리는 새로운 봄-New Springtime을 맞게 되리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앞으로 ‘쇄신 운동’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은사적 신앙 쇄신의 틀을 넘어서 초대 교회처럼 복음 선교 차원의 각성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 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요한 10,16)**

# KSC의 사역

KSC는 미주 한인 공동체의 은사적 쇄신을 위한 전국 협의체로서, 먼저 전국적으로 Network을 형성하여 전국 단위의 협력에 기여하고, 은사적 쇄신을 장차 세계 선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지원합니다.

1. KSC의 첫째 과업은 Network을 형성하여 전국의 쇄신 봉사에 참여합니다.

(1) 밖으로는 미주의 쇄신 운동을 협의 총괄하는 The National leaders' Gathering에 계속 참여하고, 쇄신의 기능별 전국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The National Leaders' Gathering는 아래와 같습니다.

- NCC Bishops' Ad Hoc Committee for the Charismatic Renewal-주교 소위원회
- NADL-National Association of Diocesan Liaisons-교구 연락관 협의회
- NSC-National Service Committee-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 전국 위원회
- Covenant Communities and Catholic Fraternity of Communities-계약공동체 협회
- National Ethnic Committee-Filipino, Haitian, Hispanic, Korean-민족별 전국기구

(2) 안으로는 9개의 지역 봉사회와 봉사 센터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은사적 쇄신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토록 합니다.

2. KSC의 둘째 과업은 쇄신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여 쇄신 운동을 지원합니다.

(1) KSC-Newsletter와 KSC-Website <http://kscusa.org>로 정보를 교환하며, 은사적 쇄신 자료를 번역, 출판, 보급합니다.

(2) 전국차원으로 은사적 쇄신을 협의하고, 전국 단위의 은사

적 쇄신 봉사자를 지원합니다. 전국 대회, 봉사자 세미나,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주관합니다.

3. KSC의 셋째 과업은 쇄신 운동과 선교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지원합니다.

(1) 지역의 청년 기도회, 청년 봉사회 구성을 도와주고, 전국 협의체 구성을 지원합니다.

(2) 한미 가정을 위하여 한미 가정을 연결하는 한미 가정 신앙 쇄신 세미나를 지원합니다.

(3) 대학 선교를 위하여 각 대학 캠퍼스를 연결하는 대학 선교 봉사자를 지원합니다.

4. KSC의 넷째 과업은 미주 가톨릭 한인 공동체가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성령 안의 삶 세미나' (2000 새 지침서) 가 본당 공동체의 쇄신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0 LSS 세미나의 팀 봉사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2) '성령 안의 삶 세미나' (2000 새 지침서) 가 교의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의 좋은 수단이 되며, 은사적 신앙 쇄신의 열쇠가 되는 회심의 탁월한 도구임을 적극 홍보합니다.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교본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  
New Manual

**Receive the Holy Spirit**



## 세미나 소개 강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오 11,28)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생명에 초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사는데 필요한 힘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성령을 은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안에 받아 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받고,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개인적이고 위격적(personal) 치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오늘 주님께서서는 다시 이와 같은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은총을 은사적(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신원을 확

인시키려고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모두 이 초대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로마 8,9)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로마 8,14)

# 제1 강의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요한 3,16)

하느님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어디까지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보다 더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얼마만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와의 사이에 장벽이나 간격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하느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복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악의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이 말씀으로써, 죄악에 물들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몸부림치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믿고 받아 들임으로써 하느님께로 부터 나오는 능력이며 자비입니다. 이렇게 믿고 받아 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한 큰 영광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한 1,12-13)

### 그룹 대화 주제

- 주의 기도 또는 성모송을 합송합니다.
- 각자 신앙을 중심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니, 그룹 책임자가 먼저 짧게 자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나누도록 합니다.
-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 한 마디씩 그룹 전체가 간단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 제2 강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 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베도 2,24)

하느님은 우리들을 지금도 꼭 같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날 낙원에서 살았던 때보다더 귀한 축복을 주시고 자 합니다. 즉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능력에는 도저히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값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즉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느님은 그리스도 즉 말씀이신 하느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로마 3,23-24; 26b)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하여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인간, 즉 구원 받은 인간이 되지만, 우리의 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악의 사슬로 묶으려는 어두움의 세력 -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 즉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서에도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에페 6,12)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력들과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의 힘보다 훨씬 거대한 힘, 세상의 뿌리 깊은 악의 뒤에 존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존재와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의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콜로 2,14-15)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콜로 1,13)

### 그룹 대화 주제

-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나눕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을 인식 하고 있습니까?
- 세례 성사를 받을 때 하신 서약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 제3 강의 새 생명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르 1,9-11)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마태 3,11; 마르 1,8; 루카 3,16; 요한 1,33)

하느님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새 생명 즉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 성령은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로마 7,9)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 당신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요한 5,24-25)

오순절에 사도들이 한 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 갔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언변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하느님의 성령을 따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초대 교회의 사도들이나 신자들이 체험함 것과 똑 같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 들이면 이렇듯 성령 안의 세례로 새 생명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성령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총의 선물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은사들(1고린 12, 7-11 참조)과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갈라 5, 22 참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과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받은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요한 14,15-17)

### 그룹 대화 주제

-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살듯이 우리 안에서도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성령 안의 세례 (잠김)에 대한 체험을 한 이들은 그 체험을 이야기합시다.

## 제4 강의 하느님의 은총을 받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우리는 세례와 견진을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인식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은총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느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돌아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니 아버지께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으면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될 수 있나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느님을 신뢰하고, 마치 어린아이 처럼 하느님만 바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돌아 가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 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요엘 3,1)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순절 설교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루가 15, 11-32) 아버지의 크고 크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 놓으며, 그렇게 사는 동안 내가 받은 많은 아픔과 또 내가 남에게 만들어 준 아픔을 하소연하는 마음, 아버지를 떠나 사는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생활을 털어 놓는 마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 하느님,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시

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1-13)

### 그룹 대화 주제

-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회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와 화해는 무엇입니까?
- 심령 기도가 나의 신앙 생활에 어떻게 활력을 주고 있는가 이야기합시다.
- 성령 안의 세례(잠김)을 받을 때의 편안한 자세에 대하여 가르친다.

##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와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 1. 자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실 필요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런 생각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 2.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걱정:

성령 체험은 사도 시대에는 어머니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 그리고 오늘날 교황님을 위시하여 많은 열심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성령의 현존 체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들면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 3. 자신의 개성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

하느님께서 우리를 로보트처럼 조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개성 및 자유 의지를 절대로 존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실 정도로 우리의 개성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 4.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라는 유혹

유혹은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생기면 즉시 +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신과 유혹의 사탄아, 물러가라 + 고 명령합시다.

### 5.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는 교만한 생각:

교만은 사탄이 넣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하느님께서 이 불완전함을 당신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마땅합니다. + 사탄은 물러가라 + 고 명령합시다.

### 6.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걱정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영적이 아닌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께서 주신것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고린도 전서 2,14)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걱정은 모두 주님께 봉헌합시다.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7-38a)

## 제5 강의 성령 안의 세례 (잠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이제 우리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여기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쳐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을 바라 봅니다. 주님께서 는 우리가 당신의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가득 차서 신령한 언어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요한 5,24-25)**

오늘은 새 날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새 삶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박차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 타, 흔쾌히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부모 형제 자매, 내 이웃을 모두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사도 2,33)**

지금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모두 기쁘게 받고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요한 16,13-15)

## 제6 강의 성령 안의 성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성령을 새로이 체험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활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정도와 때는 달랐을지 모르나, 지금 새 생명의 기쁨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원했던 것과 같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감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한편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면 다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기를 훌륭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심령도 이제부터 잘 성장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뿌려진 새 생활의 씨앗이 잘 자라야 합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깎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댄 새 형질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르 2,21-22)

우리의 새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서를 읽으며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부터 끊임없이 성장하는 생명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전에 없이 기쁨을 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이 나오고, 성서를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부쩍 부쩍 성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 세우고 싶어 집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 하심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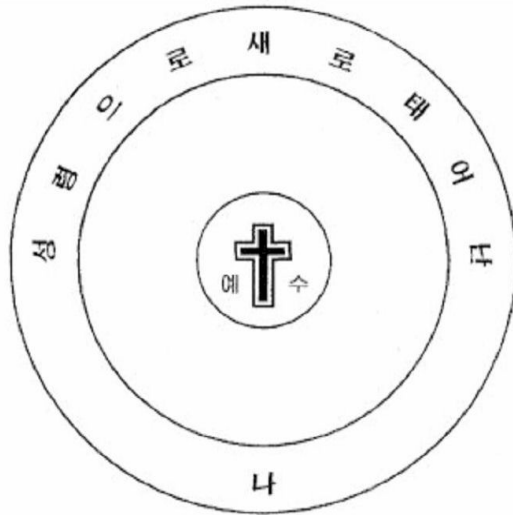
점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받아 그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내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4)

### 그룹 대화 주제

- 이미 체험한 성령의 현존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더 기대하는지, 신앙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 내 삶에 대하여 하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 성장의 바퀴(Wheel of Growth)



## 제7 강의 그리스도로 변화됨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6a-17)

성령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 변화시켜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이 보다 참되고 바르게 그리스도의 그것과 닮은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은총의 선물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작은 일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그분의 성령)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마르 8, 34)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과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더욱 강하게 저항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나 시련을 통하여 사도 바오로의 “고통을 당할 때 더욱 기뻐했으며...” (로마 5, 3)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시련을 당할 때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오.” (야고 1, 2) 라는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20)

우리의 궁극 목표는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 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반대자들로 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

았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받아 극복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있는 지금 세상에서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힘에 의지해서 내 안팎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성령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필리 1,29)

### 그룹 대화 주제

- 내 삶의 목표와 앞으로의 나의 생활에 대하여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 내 삶에 대하여 하느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느님의 뜻에 순명 하겠습니까?

## LSS 세미나는 복음 선교의 탁월한 수단

전 세계 그리스도교계는 기원 2000년을 보내면서 지난 2000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30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원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여, 이 복음을 보편화하는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본사명으로 볼때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당연히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선교의 차원에서, 20세기에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두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20세기를 맞으면서 오순절 사건이 현대 교회 안에서 재현된, 이른바 ‘오순절 운동’입니다.

둘째 사건은 Catholic교회의 혁신을 가져온 제2차 Vatican 공의회로서, 안으로 교회 쇠신을 시도하고, 그동안 닫혀 있던 전통 교회의 문을 세계에 개방, 갈라진 그리스도 교회는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까지도 대화를 시도한 쇠신과 개방 운동입니다.

20세기에 제기된 이사건들은 21세기를 내다 보는데 중요한 시대적 징표가 됩니다.

우리는 그 동안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고, 2000년 축제를 보내고, 3000년을 내다 보면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새로운 봄’을 예비하셨다는 비전으로 고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하느님의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으로 이루어 진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과 응답이 흔히 ‘성령 세미나’로 알려진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통하여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s)는 처음에 ‘하느님의 말씀 공동체’(Ann Arbor, MI)에서 은사적으로 개발한 심령 각성 프로그램인데, 즉시 미국 ‘은사적 쇠신’ (Catholic Charismatic Renewal)에 도입된 후 지난 40년간 전 세계로 확산되어 무려 1억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각성시켜, 그 은사적 축복이 실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미나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복음 선교의 탁월한 수단의 하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처음에 교파를 초월하여 진행하도록 작성되었으나, 곧 가톨릭용 수정판이 나와 가톨릭 전통 신앙 (성사와 전례)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톨릭용 수정판 ‘세미나 지도 지침서’의 정신으로 세미나를 인도하는 팀 봉사자를 각 지역 봉사회 단위로 시행하면서 많은 봉사자를 배출 하였습니다.

2000년을 기하여 ‘성령 안에서의 삶 세미나 새 교본’ (The New Life in the Spirit Seminars Manual-Catholic) 이 출간 되었으며, 우리는 새 교재에 따른 세미나를 위하여 한글판의 발간과 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SC는 이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기초 세미나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봉사자 세미나 1, 2, 3, 은사적 성모신심 세미나, 은사적 성체 신심 세미나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료와 선후배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복음선교의 사역을 위해 기도 합니다.

#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언어 와 예언 말씀에 대한 KSC 지침

##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노래

우리는 보통 성령 안의 세례(잠김)를 위한 기도를 받을 때 신령 기도를 하지만 기도회에서 자유롭게 개방됩니다. 신령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인식을 명확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에서는 모두 함께 신령한 기도나 신령한 노래(영가)를 합창합니다.

신령한 기도는 신령한 언어(영언) 또는 다른 성령의 은사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초보적인 영적 기도로서 다른 봉사 은사를 현현하게 되는 입문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신령한 기도는 이성 기도나 묵상 기도와 달라서 즉각적으로 관상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 내는 관상기도’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기도는 단순하며 하나님께 찬미와 흠숭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반드시 신령한 기도와 신령한 노래(영가)를 열렬하게 합창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기도회’ 또는 ‘찬미 기도회’라 부르게 됩니다. 신령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어지고 다른 은사의 현현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 신령한 언어(영언)와 예언말씀

우리는 신령한 기도 또는 신령한 노래와 구분되는 신령한 언어(영언)의 은사도 현현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언어(영언)의 은사가 현현되는 경우 이를 우리 말로 하는 예언 말씀과 구분하여 신령한 예언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우리 말로 해석해 주는 ‘해석의 은사’가 후속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I 고린토 14: 5)

그런데 그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령한 기도, 신령한 노래와 함께 신령한 언어(영언) 또는 예언 말씀은 모두 하나님과 통교(대화)하는 기본 은사에 속합니다. 성령의 감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 주신다는 통교(대화)의 상응성 원리를 경험하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또는 기도회에서 함께 신령한 기도, 신

령한 노래를 충분히 합송 또는 합창한 다음에 항상 **하느님(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신령한 기도,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찬미를 받듯이, 또한 예언 말씀 또는 신령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은사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 공동체의 혼란을 경고하였듯이, 예언 말씀을 사전에 분별해야 하는 성령 대회에서는 신령한 예언을 현현할 수 없게 되고, 일선 기도회에서도 분별의 문제 때문에 이 은사의 현현은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신령한 예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말씀으로 바꾸어서 현현하도록 권고합니다. (KSC Guideline)

다만 세미나중 기도방에서는 해석과 함께 이 은사가 봉사 기도로 개방, 현현될 수 있습니다.

## KSC 연표

- 1979년 4월 초, 미주 처음으로 한인을 위한 성령 세미나가 박창득 신부(Orange, NJ) 지도로 시작되다.
- 1992년 2월, NSC(미 전국위원회)가 NSC-AC 한인 자문 위원(이창재 부제)를 통하여 KSC 한인 전국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다.
- 1992년 5월 18-21일, 북미 한인 사목 사제 협의회(회장 박창득 신부) 92년도 정기 총회 (Atlanta, GA)는 성령 쇄신을 위한 한인 전국 봉사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KSC-북미 한인봉사회의 구성을 결의, 그 시행을 회장 신부에게 위임하다.
- 1992년 6월 5-7일, 가톨릭 성령 은사 쇄신 25주년 미 전국 성령 대회와 함께 가진 Korean Mini-Conference 에서 모인 북미 각 지역 기도회 회장, 봉사자들의 회합에서 '북미 한인봉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제 총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하다.
- 1992년 10월 30일, 북미 교포 사목부 총 대리 (박창득 신부) 명의로 천주교 성령 쇄신 북미 한인 봉사 위원회 창립 발기 위원회를 소집하다. (Newark, NJ)
- 1992년 10월 31일, KSC의 정관을 제정하고 회장에 박창득 신부, 상임 집행 위원에 이창재 부제를 선임하고, 창립 일자를 11월 1일로 결정한 후 창립 봉헌 미사로 KSC '천주교성령 쇄신 북미한인 봉사 위원회'의 창립을 선포하다.
- 1992년 11월 1일, NSC 의장 Sam Jacobs 주교에게 KSC 창립을 통보하다.
- 1992년 12월 1일, KSC News 소식지를 창간하다.
- 1994년 6월 24-25일, 미 전국 성령 대회 (Santa Clara, CA)에서 Korean Mini-Conference 한인 대회를 북가주 봉사회와 함께 주관하다.

- 1995년 1월 12-13일, 집행 위원회 (총회대행) (Orange, NJ)에서 김택구 신부를 2대 회장에 선임하다.
- 1996년 6월 21-23일, 미 전국 성령 대회 (Edison, NJ) 준비 위원회에 참가하고, 미 전국 성령 대회에서 한인 청소년 대회를 동북부 봉사회와 함께 주관하다.
- 1997년 1월 4일, 집행 위원회 (총회대행) (Laguna Beach, CA)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KSC 한글 명칭을 변경: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한인 봉사 협의회’로 하다.
- 1998년 1월 11-12일, 97-98년 총회 (Laguna Beach, CA)에서 다시 회장에 박창득 신부, 부회장에 김영호 이철수 신부, 이창재 부제 (상임)를 선임하다.
- 2000년 7월 16일, 총회 (Glen Pointe, NJ)에서 회장에 박용일 신부, 부회장에는 곽길우 신부, 이창재 부제(상임)를 선임하다.
- 2002년 7월 12일, 2001-02년 총회 (Hackensack, NJ)에서 이창재 부제를 회장에 선출하고, 임원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등) 선임과 사무국 이전을 회장에게 위임하다.
- 2002년 8월 30일, KSC 전반운영, 재정 관리를 위하여 KSC HQ 사무국을 이전하고, 소식지 간행, web 관리를 위하여 Communication Center를 사무국에 개설하다.
- 2004년 6월 4일, 2003-04년 총회 (Harmon Meadow, NJ)에서 정관을 개정, KSC 이름을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로 바꾸고, 이창재 부제를 회장에 재선,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다.
- 2008년 5월 25일, 2007-08년 총회 (Federal Way, WA)에서 회장에 박창득 몬시뇰, 자문 위원에 이창재 부제를 선임하고, 사무국장 이은경을 유임시키다.

# 새 아침 (오순절 아침)

Eunkyung Jullia Lee

♩=96

나 는 너 의 머 리 위 의 별 빛 을 나 는 너 의 가슴 속 의  
우 리 모 두 머 리 위 에 별 빛 을 우 리 모 두 가슴 속 에

4

사 랑 을 만 세 상 에 펼 쳐 라 나 의 - 사 랑 을  
사 랑 을 만 세 상 에 펼 치 리 주 에 수 사 랑 을

9

살 랑 을 만 세 상 에 펼 쳐 라 나 의 - 사 랑 을  
살 랑 을 만 세 상 에 펼 치 리 주 에 수 사 랑 을

13

세 상 에 펼 쳐 라 나 의 - 사 랑 을  
살 - 랑 을 만 세 상 에 펼 치 리 주 에 수 사 랑 을

## 샘 솟는 물 (요한 4장)

이은경 플리아



사 마 리 아 의 여 인 에 게 예 수 님 물 을  
세 상 의 물 을 마 시 는 자 또 다 시 목 마



청 했 네 당 신 은 유 다 인 이 고  
르 지 만 내 가 주 는 물 마 셔 라



나 - 는 사 마 리 아 여 인 어 찌 하 여  
이 물 마 시 면 영 원 히 목 마 르 지



청 하 십 니 까 오 히 러 내 게 청 하 여  
않 으 리 라 샘 - 물 처 럼 솟 아 올



라 샘 솟 는 물 - 을 주 리 라  
라 영 원 히 살 게 할 것 이 라

# KSC



<http://KSCUSA.org>